

“나부터 참회해야 同業도 소멸”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있다.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해결책도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병폐는 치유는 커녕 점점 심각해 지는 추세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탐내는 마음에서 중생계의 모든 악행이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기르는 자제야말로 정토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로 제시되고 있다. 탐심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하다. 참회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날의 악한 뿌리를 뽑아 버리고 새로이 선한 뿌리를 기르려는 노력에서 탐심은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앞서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골깊은 병폐는 치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현대불교는 97년 한해동안 ‘참회의 삶을 살자’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자한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쟁계사 조실 고산스님과 경기대 법학과 고준환교수가 참회하는 삶의 길을 안내하는 대담을 가졌다. (편집자 주)



고산스님:고준환 교수 대담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고준환교수:모든 중생은 성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성불이란 목표점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각계에 만연된 비리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밝은 미래 역시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볼때 과거까지 포함한 현재를 참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는 재가자나 출가 수행자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수많은 계율들이 떠오르고 자자(自恣) 또는 살(邪淫) 등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지계를 강조하는 만큼 위계에 대한



고산스님 <쟁계사 조실>

“지는 죄 누우치고 죄 짓지 않겠다” 서원 해야 참회

▲고산스님:그렇습니다. 참회하지 않고 좋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은 어불성실입니다. 뒷물이 맑지 못하면 어떻게 아랫물이 맑아질겠습니까. 참회는 시작부터 맑은 물이 되도록 하기위해 지나온 길과 지금의 길을 맑게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바 죄를 누우치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원이 함께 이뤄져야 참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합니다. 그런데 먼지가 끼었거든요. 이 먼지는 다생의 숙업으로 끼게 된 것인데 이걸 닦아내지 않으면 점점 두터워지니까 성불의 기약도 멀어지지만 가는 것이지요. 죄업으로 끼인 때를 다 닦아 불성지리에 광명을 비추는 것이 참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면 다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받아 들이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고준환교수:부처님 당시부터도 참회

법을(法)도 다양했으며 이것이 불교의 독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산스님:참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이 그것인데 이참은 마음으로 누우치는 것이고 사참은 몸과 물질적으로 누우치는 것입니다. 몸과 물질로 누우친다는 것은 잘못의 죄를 소멸키 위해 고행을 하거나 노동으로 봉사하거나 재물등으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자나 포살등은 참회가 없는 성불도 없다는 신념을 실천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참법이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택한 참회방법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율과 참회가 동시에 연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모릅니다. 계율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 규범이자 질서이고 참회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한 후에 누우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계율을 잘

생활혁신·밝은 내일 ‘참회서 시작’ “계율 잘 지키면 참회 필요없어요”

자키는 것이 참회의 여지를 없애는 길이라는 결론도 쉽게 나옵니다. 승가에는 수백종의 계율이 정해져 있으며 재가를 위한 계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율목은 다 지키기란 또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떤 일은 지계이고 어떤 일은 파계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 역시 ‘양심’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양심은 불심입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행동과 생각으로 살면 파계도 없고 참회도 필요 없습니다.

▲고준환교수:우리가 흔히 참회라하면 현생에서의 잘못을 누우치는 것에 국한시켜 생각하기 쉬운데요. 경전에서는 참회는 과거 수없는 윤회속의 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산스님:우리의 현재는 현재라는 관념일뿐 과거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 의해 지어졌고 또 미래의 모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참회도 과거 현재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미 참회입니다만 수없는 전생(轉生)을 하며 어떻게 다 누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생이 과거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현생에서의 업이 과

거생의 업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누우치고 참회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먼 과거세의 일도 함께 반성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삼년간 입은 더러운 옷을 하루 아침에 빨래하면 다 깨끗해 지는 이치가 경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탁하면 깨끗해 지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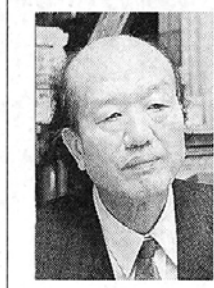
▲고준환교수:참회를 하는데 있어 잘못을 자각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알아서 누우치는 것은 다행스런 경우이겠지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비로소 잘못된 줄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강제성이 갖든 참회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의 차이는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관련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의 체벌에 대한 논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벌은 결국 잘못을 일깨워 거듭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참회를 하게끔 강제성 유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산스님:앞에서 강조 했던 진심참회가 중요하데 이를 스스로 하는 경우는 수순한 것입니다. 자자나 포살법회가 수

순한 참법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서의 체벌 문제는 참회를 위한 수단이란 측면은 인정 되지만 물리력이 가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체벌과 관련해서 나는 ‘필요하고도 필요없다’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하면 잘못을 한 당사자가 말을 하거나 눈짓을 해서도 누우칠 수 있는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치 않고 말로는 인되고 물리적인 아픔을 주어야 비로소 누우칠 근거를 가진 경우에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근거를 잘 살펴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체벌이 된다 안된다를 따지는 일은 무의미 합니다. 그런 분석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문제지요. 체벌은 참회시키는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

요. ▲고준환교수:참회의 방법에 대해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의식이 서로 다르지요. ▲고산스님:부처님 법이 대소승으로 나뉘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 것 뿐이지요. 참회도 나뉘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우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참과 사참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입니다.

▲고준환교수:삼라만상이 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지금 세계는 지역에 따라 굶주림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현실도 참회의 대상이 아닐런지요. ▲고산스님:북한뿐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의 현실이 참회 없는 탐욕의 과보입니다. ▲고준환교수:사회가 다문화 되면서 개인이 짓는 업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고준환 교수 <경기대 법학과>

남이 잘못 지적할때 겸허히 받아들이고 참회할 줄 알아야

함께 짓는 동업(同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업에 대한 참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산스님: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국경이라는 벽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대로 그런 변화는 인간의 심성과 가치관을 황폐화시키는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화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변하는 환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게 잘못이지요. 바로 이런 잘못이 우리 사회의 동업을 낳고 있어요. 참회해야지요. <능업경>에 동업과 별업(別業)이 나오는데 이것은 풀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동업에 별업이 있고 별업 속에 동업이 있습니다. 한통속인 겁니다. 그러나 동업을 참회하는데 사회구성원이 다 모여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되자

▲고준환교수:경전 속에는 참회와 관련된 설화도 많고 가르침도 많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도 늘 참회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산스님:‘앙굴리마라’의 얘기는 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흥포한 죄인도 진심참회를 함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회의 결과는 죄업의 크기와 상관 없이 그 마음의 간

절함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사는 과정과정에서 죄악한 것이 없습니다. 쌀밥을 먹고 사는 일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언제 버가 ‘나를 배어다 알곡을 받아 쪄서 밥을 해 드시오’라고 허락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며 베풀어준 베풀어준 미안한 생각을 갖지 않잖습니까. 죄이지요. 경전에 나오는 설화들이 많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현재 저지르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에대한 참회를 분발시키는 것이라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성유생의 이웃과 더불어 살며 끝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서 참회하는 삶은 ‘내가 성불해 너희를 다 제도하리라’는 서원의 삶인 겁니다.

▲고준환교수:끝으로 스님께서 참회를 주제로 법문을 하실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 주십시오.

▲고산스님:살아가는 순간이 다 죄짓는 순간이라 한 것을 뒤집으면 살아가는 순간이 다 참회하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늘 신중하고 양심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늘 ‘물위길 용지인(勿爲乞容之人) 능위서타지인(能爲恕他人)’을 말합니다. 남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말고 남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지요.

정리=임연태 기자

佛紀 2541년 근하신년

“신한국당 불교신도회는 2000만 불자 여러분들과 불교 중흥의 새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신한국당 불교신도회 합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번지 ☎ (대)783-9811